천의 얼굴 가진 반전 매력의 존재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⑤ 재생과 불사, 불교문화 속 뱀

벌써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은 겨울잠 자던 동물이 깨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인 뱀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로 진화한 동물이다. 다리가 없어도 4백 개가 넘는 갈비뼈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헤엄도 능수능란하다.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어 어디든 뱀이 없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을 정도다. 뱀의 끈질긴 생명력과 특수한 신체 구조는 먼 중생대부터 현재까지 2800여 종이 살아남은 생존 비결일 것이다.

뱀은 분명 대단한 능력을 지닌 동물이지만 우리는 뱀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사지가 없는 미끌미끌한 몸에 두 갈래로 날름거리는 혀, 맹독을 품은 날카로운 이빨까지 예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호감 요소들로 뭉쳐 있다. 더군다나 어둡고 습한 음지에 서식하니 보기만 해도 찝찝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용왕의 원조

그렇다고 뱀이 늘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진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 뱀은 의학을 상징하고 동양에서도 집안을 지키는 가택신(家宅神)이자,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여섯 번째에 배치돼 있다. 신라 왕릉 조각과 사찰 도량장엄(道場莊嚴)에 쓰인 십이지번(十二支幡)의 뱀은 시간과 방위만을 알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온갖 삿된 것을 물리치는 수호 역할까지 한다. 왠지 불가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찰 곳곳에서 우리들을 반겨 주고 있다.

불교에서 뱀은 용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사찰에서는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옷날에 용왕재를 봉행한다. 한 해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단옷날이기 때문이다. 양기가 강하면 불기운을 머금어 화재를 가져오니, 물을 다스리는 용왕님께 공양을 올려 화재를 예방하고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용왕은 물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으로, 부처님을 호위하는 호법신중(護法神衆)으로 불교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용왕의 개념은 일찍이 인도불교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용왕은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 시작은 뱀의 형상을 한 나가(Nāga)였다. 산스크리트어로 뱀, 특히 코브라의 의미를 지닌 나가는 이름 그대로 '후드'라고 불리는 독주머니를 편평하게 넓힌 코브라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본래 고대 인도에서 나가는 강한 힘과 자존심을 지닌 악신이었다. 그러나 물속을 헤엄치고 육지에서도 생활하는 뱀의 습성 때문인지 나가는 악신에서 강과 호수, 바다 등물과 관련된 신으로 인식이 점차 바뀌게 된다. 강력한 힘에 인간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관장하는 능력까지 지니게 됐으니, 고대 인도 사람들은 나가를 숭배 대상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가는 인도불교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나가가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했을까? 그렇지 않다. 나가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초기 불교경전인 〈율장(律藏)〉에는 부처님이 우루웰라라는 지역의 나가와 대결을 펼친 내용이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가의 소굴이었던 법당에서 결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는데 그 모습을 본 나가가 불을 뿜어 대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부처님께서도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드시어 더욱 큰 화염으로 나가를 굴복시켰고,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불가에 귀의했다고 한다.

대결 이후 나가는 부처님을 지키고 수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하는데 이 또한 위에서 살펴본 〈율장〉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날 정각의 기쁨을 느낀 부처님께서 7일 동안 삼매에 드셨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때 무짤린다라는 나가가 부처님 몸에 똬리를 틀어 감싸고 큰 장막을 펼쳐 7일 동안 보호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인도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나가도 함께 알려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나가는 용왕으로 변한다. 중국에서 인도 경전 속 나가를 용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인도에는 본래 용의 관념이 없고, 기온이 다른 중국에는 코브라가 살지 않는다. 이에 몸이 길고 물과 관련 있으며 신비한 힘을 지닌 존재라는 나가의 성격이 중국의 용과 맞아떨어져 용왕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변신의 귀재 뱀신 나가, 이렇게 그는 흉폭한 악신에서 수신으로, 그리고 부처님과의 대결 끝에 귀의하여 수호신이 됐고 용왕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된다.

예지력과 다산, 풍요의 상징

고대 중국 백과사전인 〈산해경(山海經)〉에 등장하는 여러 신을 살펴보면 "북해 모래섬 안에 신이 있다.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으로 두 마리 푸른 뱀을 귀에 걸고 붉은 뱀을 밟고 있는데 이름은 우강(禺彊)이다"라거나 "서방의 신 욕수(蓐收)는 왼쪽 귀에 뱀을 걸고 있으며 두 마리 용을 타고 있다"고 묘사돼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점은 뱀을 휴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산해경〉에는 뱀을 걸거나 잡고 밟는 등의 다양한 신들이 기록돼 있다.



부처를 보호하는 나가(캄보디아 12세기,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십이지번의 뱀상(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진주 청곡사 홍도 스님 설화 벽화.

서양서 의학 상징, 동양서 가택신으로
뱀 형상의 나가, 인도불교서 용왕 돼
고대문명서 불사와 힘의 원천 상징도
불교 설화엔 과오 벗는 참회의 기회로

그렇다면 신들이 지닌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뱀의 생태적 습성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뱀은 추운 겨울 동면에 들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깨어나고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을 얻는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 봄은 탄생과 출발을, 겨울은 죽음과 종착역을 상징하니, 겨울잠을 자는 뱀은 소멸하지 않는 무한한 존재로, 허물을 벗는 모습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조사신이 뱀을 휴대하는 것은 뱀의 원초적 생명력을 소지하거나 과시함으로써 불사와 강한 힘을 표현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뱀이 불사와 힘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진 또 하나의 사례로는 복희(伏羲)와 여와(女媧)를 들 수 있다. 복희와 여와는 중국 설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두 신은 중국 한(漢)나라에 이르러 서로 짝을 이뤄 음양과 천지를 대표하는 신으로 발전한다. 두 신은 하반신은 뱀의 형상인데 양자가 꼬리를 서로 휘감고 있는 모습으로 중국 화상석(畫像石)과 실크로드 곳곳에 표현돼 있다. 하반신 뱀 형상은 강력하고 무한한 힘을, 서로 휘감은 모습은 교미를 통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처럼 두 사례를 통해 고대문명 속 뱀은 징그러운 흉물이 아닌 힘과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신들의 필수적인 매개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설화에도 뱀은 자주 등장한다. 어느 선비와 정을 통한 비구니 스님이 선비가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한 약속만을 기다리다가 한이 맺혀 뱀으로 변했다든가, 홍도(弘道) 스님이 큰 구렁이로 변해 버렸다는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금강산 표훈사의 암자 돈도암에 주석했던 홍도 스님은 평소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여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는데 자신이 병이 들자 부처님을 원망하여 화를 냈고, 토지신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 구렁이의 탈을 씌워 버렸다.

구렁이가 된 스님은 꽁지 끝을 부엌 아궁이에 넣어 재를 묻힌 뒤, 바닥에 참회의 게송을 써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를 본 한 객승이 깜짝 놀라 구렁이가 된 홍도 스님에게 절을 하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일기진심수사신(一起瞋心受蛇身)'이라 불리는 홍도 스님의 설화는 현재 경남 진주 청곡사 나한전 벽화로 표현돼 있다. 그렇다면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불교 설화 속 뱀은 대부분 인과(因果)와 업보(業報), 그리고 참회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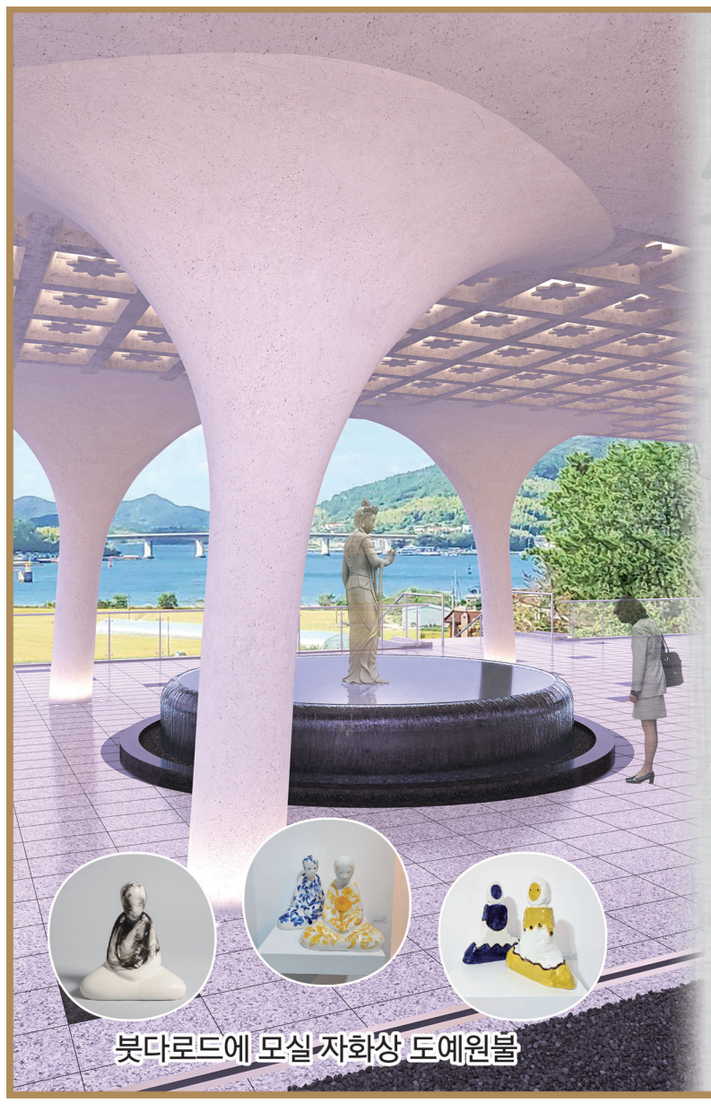
홍도 스님 이야기 등 수많은 불교 설화 속 뱀 이야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뱀이라는 껍데기를 쓰게 된다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말인즉 뱀은 죄로 인해 받게 되는 벌이자 인과의 결과라는 것인데 수많은 축생 가운데 왜 하필 뱀으로 표현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단순히 뱀이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일까? 여기서 우리는 뱀의 상징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허물을 벗는 뱀은 고대 동양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고 불가에서도 이런 뱀의 관념을 일찍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불교 설화 속 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참회의 기회다.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 죄가 무겁다면 설화 속 인물들처럼 뱀으로 변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자비와 구원의 종교다. 그저 벌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허물, 즉 자신의 과오를 벗을 수 있는 뱀으로 변하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며

뱀은 다른 동물에 비해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예로부터 뱀에 관한 관심과 열망은 뜨거웠다. 뱀의 강한 생명력과 위험한 독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상징물로 비치다가도 어느새 영험한 신격을 가진 존재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이 되기도 했다. 불교문화 속 뱀 또한 마찬가지이다. 불교의 뱀은 부처님과 대결을 펼치는 경쟁자에서 보디가드로, 그리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뉘우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모습을 보여 주는 뱀을 우리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반전 매력의 존재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 마냥 징그럽게만 여겼던 뱀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김용덕 작가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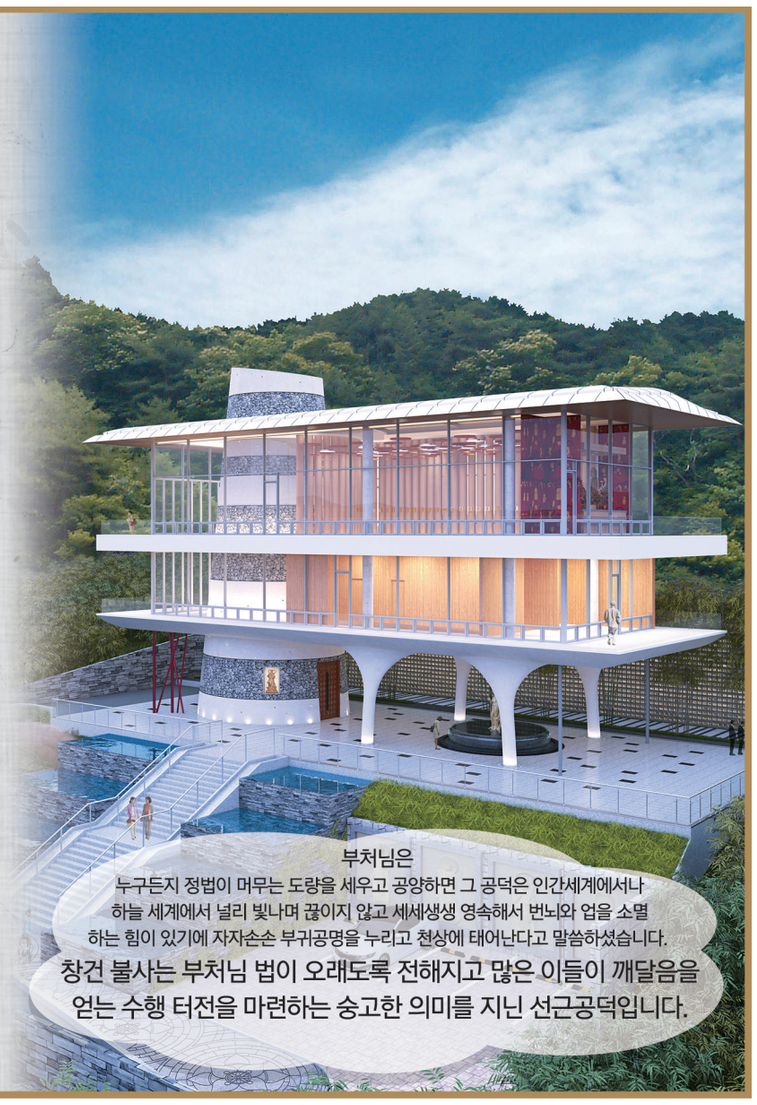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뷰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